

# 202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강사 위촉 및 재위촉 심사 안내문

## 개요

- 사업명 : 202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강사 위촉 및 재위촉 심사 안내문
- 대상
  - 협회 인권강사단 1기(재위촉 심사 대상자)
  - 협회 인권강사양성 심화과정 수료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
- 심사일정 : 2023. 12. 18.(월) ~ 19.(화)
  - ※ 원하는 요일 선택하여 해당하는 날짜에 참여
- 심사장소 : 여의도 이룸센터(서울시 영등포구) 2층
- 진행방법
  - 1인당 20분 배정(강의 시연 10분 및 심사위원 피드백 10분)
  - 1일 최대 15명 심사 예정
  - 사전과제 및 강의 교안 강의 시연을 토대로 심사
- 심사 관련 기타 안내
  - 접수기간 내 위촉 심사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권강사 위촉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(접수 의지 확인과 관련한 별도의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.)
  - 사전과제 및 강의계획서, 강의 교안 등 심사 전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할 시, 모두 위촉 심사에 반영됩니다.
  - **위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권강사 활동이 불가합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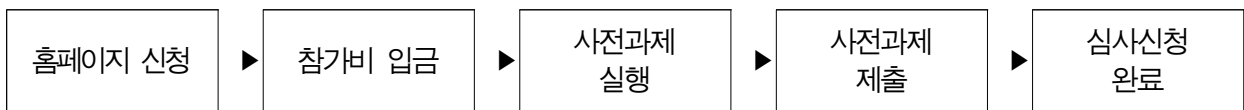
## 신청방법

### ○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11. 6.(월) 10:00 ~ 11. 17.(금) 18:00 / **기한 엄수**
-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 (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(www.kdda.or.kr) 로그인→ 참여공간  
→ 교육·행사 접수→ 2023 인권강사 위촉심사)

**※ 기한 내 미접수 시 강사 위촉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**

- 신청절차



### ○ 참가비: 1인 30,00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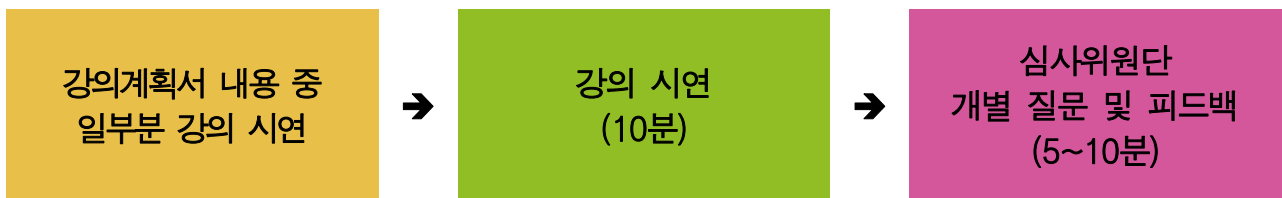
- 납부방법: 계좌이체(국민 400401-01-313889, 예금주: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)
- ※ “위촉\_참가자명”으로 입금 요망 / ex) 위촉 홍길동
- ※ 영수증 및 이수증은 일정 종료 후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발급 가능  
(신청한 아이디로 로그인 필수)

### ○ 사전과제 - 2023. 12. 5.(화)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(kdda@kdda.or.kr)

- 1) 강의계획서 및 강의 교안 제출: 강의 대상을 특정하여(이용인 혹은 종사자) 2시간 분량의 강의계획서 및 강의 교안 작성 후 제출
- 2) 인권 관련 에세이 제출: 다음 주제에 관하여 A4지 두 장 분량의 에세이 제출  
(여백, 줄간격, 폰트 변경 불가)

나는 왜 인권교육활동을 하고 싶은가?

## 심사진행방법



- \*. 시연할 부분은 심사 당일 현장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선택
- \*. 시연 참가자는 2시간 강의 전체 준비 필수

## 그룹별진행시간

- \*. 개인이 아닌 그룹별로 진행.
- \*. 그룹별로 오리엔테이션 30분 진행 후 시작되며, 같은 그룹의 시연을 참관.
- \*. 심사 신청자는 신청 시 원하는 시간대의 그룹을 전달사항에 기재.

1그룹	12월 18일 9시 ~ 13시	3그룹	12월 19일 9시 ~ 13시
2그룹	12월 18일 14시 ~ 18시	4그룹	12월 19일 14시 ~ 18시

## 심사평가항목

### ○ 서류심사: 40점 만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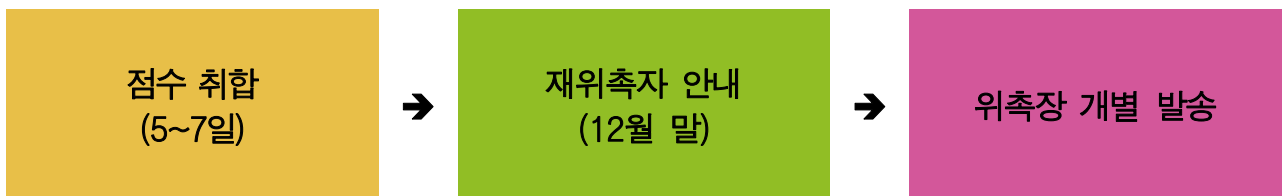
- 사전과제 제출 여부(기한 내 / 기한 후)
- 교안 및 사전과제 : 인권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
- 교육자료 : 강의 대상 및 주제에 부합하는 교안 구성
- 수강태도 : 인권강사양성과정 수강시 태도

### ○ 강의시연심사: 60점 만점

- 강의능력: 강의 자료의 능숙한 활용 및 강의대상에게 해당 내용 전달에 적절한지 여부
- 태도 및 자세: 시연자의 자세, 태도, 표정, 표현 등이 강의 내용 전달에 적절한지 여부
- 심사위원개별질문: 인권 및 강의 내용 관련 심사위원 개별 질문

### ○ 총 100점 만점 / 70점 이상 시 위촉

## 위촉자선발



- \*. 재위촉 대상자 위촉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
- \*. 위촉 대상자 위촉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
- \*. 인권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7조(인권강사 위촉) ② 인권강사의 위촉기간은 3년이며,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.

